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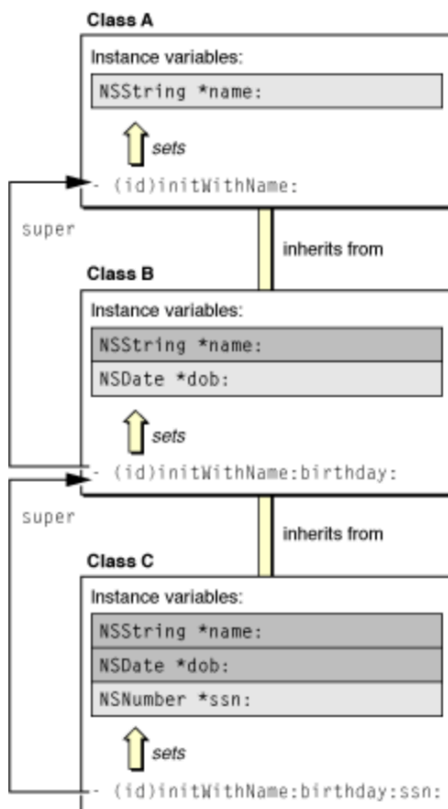
Day12. Objective-C_5

전미정

Q1. Self-Keyword, Super Keyword

A1. Self-Keyword? Self 키워드는 이전 버전에 사용된 getter/setter의 기능 중 setter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변경할 때 참조형으로 자기 자신에게 접근해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다. Self를 사용하는 이유는 변수 값에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고, leaking memory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구두점(.)을 사용하는 방법과 대괄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두점을 사용하는 방법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Super Keyword? Super 키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큰



특징 중 하나인 상속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한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코드의 활용을 위해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속이다. 이러한 상속에서 기능을 물려주는 쪽이 부모 클래스/상위 클래스(Super Class)이고 기능을 물려받는 쪽이 자식 클래스/하위 클래스(Sub Class)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Super이다. (왼쪽의 그림은 상속을 표현한다)

Q2. 캡슐화란?

A2. 캡슐화란 일반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무언가에 감싸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비슷한 개념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사용되고 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캡슐화란 연관있는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를 하나로 묶고, 실제 구현 내용은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감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캡슐화가 필요한 이유는 클래스에 담는 내용 중 중요한 데이터나 기능을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메시지를 통해 작업을 오가는 과정에서 인터페이스에 드러나는 객체는 보여줘도 되는 정보만 제공하며,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은닉하는데 이는 마치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말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필요한 일만 수행해줘”라고 하는 식으로 행동한다.

Q3. Override

A3. Override 상속이란 개념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슈퍼 클래스(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메서드를 서브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을 오버라이드 혹은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 슈퍼클래스를 이용한 오버라이드는 super 키워드를 사용하며, 재정의된 메서드의 이름, 매개변수의 타입, 개수 등은 모두 동일 해야한다. 오버라이드는 슈퍼클래스의 동작(액션)을 서브클래스에서 변경하기 위해 사용된다.

Overload 오버라이드와 많이 혼동되는 개념으로 오버로드가 있는데, 이는 메서드의 이름은 같고 리턴 값, 매개변수의 타입이나 개수가 다른 메서드를 정의하여 다양한 유형의 호출에 응답하게 해준다. 이는 상속클래스와는 별개의 이야기이다.